안녕하십니까?
홍광실버타운 시설장 이재화입니다.

막 동지(冬至)가 지났습니다.
몇일 후면 대한이 놀러와 소한네 집에서 얼어 죽는다는 소한이 다가옵니다.
수온주가 매우 내려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화창한 날이 많습니다.
벌써 12월의 끝자락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느끼는 추위인데도 늘 새롭습니다.
추운 날씨가 아직도 적응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2월은 따뜻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마음이 따뜻한 것이지요.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면 아른한 기억이 나타납니다.
행여 산타할아버지가 자기 선물만 빼놓을까 봐 밤마다 머리맡에 놓아둔
큰 양말을 수십 번이고 다시 확인하곤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던 부모님은 꼬깃한 천원 한장을 넣어주셨지요.

벌써 어르신과 함께한 시간이 3주년입니다.
3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홍광실버타운 가족들이 조촐한 다과와 함께 자축의 자리에 가족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꼭! 걸음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길 소원합니다.

“ 아 래 ”

행사명 : 3주년기념행사 및 보호자회의
(해오름예술단, 세명고등학교 봉사단)
일 시 : 2019년 12월 28일 오전 10:30~13:00
장 소 : 홍광실버타운 프로그램실

늘 부족합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꼬깃한 천원 한장의 은혜를 아직도 저희는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가슴에 행복의 배고픔이 젖어들지 않도록 다짐 또 다짐하겠습니다.
모든 가족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경자년(庚子年)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2019년 12월 22일

이 재 화 올 림